

광주경총 일자리 정책... '고용·산업' 다 잡았다

경기 둔화 등 악조건 불구, 각종 지표서 잇단 성과 거둬 정부 '직장적용 사업' 목표 초과 달성...청년·뿌리산업도

광주경제자총협회가 올 한해 일자리 사업에서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두며 지역 고용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경기 둔화와 채용 위축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참여 규모와 성과 지표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며 지역 고용과 산업 생태계를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중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8일 광주경제자총협회가 따르면 광주경총은 고용노동부 '직장적용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당초 목표였던 1000명 대비 5644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해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단순 참여 확대를 넘어 신규 입사자의 조직 적응과 장기근속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현장 평가도 높다.

이번 사업은 신규 입사자 대상 조직 적응 프로그램과 산업단지 관리자 대상 청년 진화 조직문화 교육을 병행한 것이 특징이다. 리더십, 소통, 협업 역량 강화 등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지역 전략 산업을 겨냥한 연계 사업도 눈에 띈다.

광주경총은 '북구 반도체·AI 기반 일자리 잡고 사업'을 통해 반도체·AI 분야 유망 기업 10곳을 발굴하고 기업 홍보 영

상 제작과 시제품 제작·재료비 지원 등 총 20건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며 성장 기반을 다졌다.

신입직원의 안정적 조직 적응과 근속 유도를 위해 커피차 제공, 영화관람 등 문화행사를 지원해 근무환경 개선과 조직 몰입도를 높이며 기업의 인력 운영 안정화에 힘썼다.

청년 고용 성과 역시 두드러진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에서는 당초 목표 650명을 훌쩍 넘어 917명을 달성하며 채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지역 청년의 일자리 진입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췄다. 이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로도 이어졌다.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기 사업도 성과를 축적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추진 중인 '광주 뿌리산업 구인난 개선사업'을 통해 뿌리

내림공제 약 100명, 각종 고용장려금 연계 약 150명 등 총 250여명에게 고용 지원을 제공하며 이직률 완화와 인력 안정화에 기여했다.

광주경총은 기업 수요와 구직자 특성을 정밀 분석해 채용 연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한 점을 성과의 핵심으로 꼽았다.

단기 매장을 넘어 장기근속 기반의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며 지역 노동시장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렸다는 설명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이번 성과는 지역 산업 구조와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현장 중심·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중장년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고용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종합 고용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경제자총협회가 실시한 고용노동부 '직장적용 지원사업'으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및 직장 적응 온보딩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북구 반도체·AI 기반 일자리 잡고 사업' 일환으로 실시된 커피차 제공 모습.

"롯데칠성 광주공장, 연착륙·기능 재편 병행해야"

광주경총, 단기·중기·장기 대응 촉구...공개 협의체 제안도

지역 경제계가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단기·중기·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자총협회는 최근 임정문을 통해 "롯데칠성 광주공장 폐쇄가 현실화될 경우 지역 차원의 단기·중기·장기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며 "핵심은 폐쇄 저지 노력과 불가피할 때의 연착륙, 이후 산업 기능 재편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와 북구, 정지권, 노동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개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광주경총은 특히 협의체의 목표를 '폐쇄 철회 또는 부분 전환 등 변경'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롯데칠성 광주공장에 사회적 합의 절차를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폐쇄 추진을 중단하고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경총은 광주공장이 단순 생산기지 아니라 신제품 파일럿 생산, 소량 다품종 생산, 초기 품질 안정화 등 대형 공장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기능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분사 차원의 기능 재평가를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재무자료와 생산·투자 계획, 인력 구조 등을 공유받아 '폐쇄 외의 구조조정 수단'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공장에는 1개 생산 라인이 가동 중이며 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고용 인력뿐 아니라 물류·용역·영업 등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약 200여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우려된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원거리 전환 배

치 방침에 대해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공장 폐쇄가 직원과 가족의 삶뿐 아니라 지역 청년층의 미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이 같은 우려가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기업 생산 시설의 지방 이탈이 반복될 경우 지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생산시설 지방 이전·철수 문제를 공론화하고, 세제와 지원 제도 개편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은 "지역사회가 공동 비상대책기구를 꾸려 공장 증착 폐쇄 반대와 정상적인 협의 절차 보장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며 "일방 폐쇄가 강행될 경우 각종 지원 축소 등 '체적'도 함께 검토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목포상공회의소, 2026년 신년인사회 개최

내달 2일 오후 2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컨벤션홀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다음 달 2일 오후 2시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컨벤션홀(1층)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남 서남권 관내 지자체장

을 비롯한 지역국회의원, 유관기관 사회단체장, 상공인 등이 대거 참석해 경제 활성화와 상공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전남 서남권의 AI·에너지 산

업 대전환, 해상풍력·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유치 등 주요 경제 이슈와 맞춤형 혁신적인 변화와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성황리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이번 신년인사회를 통해 변화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도약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상공인들의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삼성전자가 삼성TV 플러스에 AI로 2000년대 과거 인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올인원(AI-in-One) AI 통합 채널'을 운영한다.

삼성 TV 플러스, '올인원 AI 통합 채널' 운영

2000년대 드라마 복원...시로 화질·사운드 등 시청 극대화

삼성전자가 삼성TV 플러스에 AI로 2000년대 과거 인기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올인원(AI-in-One) AI 통합 채널'을 운영한다.

28일 삼성전자가 따르면 과거 저화질로 촬영된 드라마를 생성형 AI 기반 업스케일링 기술을 적용해 4K 수준의 초고화질로 복원했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가 즐겨 보던 추억의 명작 드라마를 자녀 세대와 함께 고화질로 즐길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콘텐츠는 가을동화, 명랑소녀 성공기, 다모 등 2000년대를 대표하는 명작 K-드라마다. 향후 겨울연가, 옥

탑방 고양이, 토마토 등 드라마도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인원 AI 통합 채널'에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화질 업스케일링, 음질 리마스터링, 줄거리 소개, 지난 이야기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화질 업스케일링'은 노이즈 제거, 색 표현 개선, 디테일 강화 등을 통해 2000년대 드라마의 감성을 현재 시청 환경에 맞춘 고품질 화면으로 보여준다.

'음질 리마스터링'은 AI로 등장인물 목소리와 배경 소리를 분리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목소리의 저음부를 되살려 자연스

러운 음색을 구현했다.

또 'AI 시놉시스'(줄거리 소개)는 회차별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줘 드라마를 보기 전에 흐름 파악을 도와준다.

이전 회차의 주요 장면을 자동 편집해 요약해주는 'AI 리랩'(지난 이야기) 기능도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삼성 TV 플러스를 명작 K-드라마를 현대적으로 재탄생시키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최준현 TV 플러스 그룹장은 "이번 AI 통합 채널 론칭은 영상과 음성, 시청 경험 전체를 AI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시청 패러다임"이라며 "삼성전자는 AI TV의 글로벌 리더로서 지속적으로 기술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공저자
--	--	---	---	---	--



광남일보